

# 죽음의 관문 넘지 않으면 살 길도 없다



## 지허 스님

(선암사 태고총림 부방장)

“요즘 신문사는 어때? 거기도 힘들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곳이 있어야지. 그래도 신문사가 잘 돼야 하는데 말이야. 중요하거든. 세상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신문이 크게 북을 쳐서 정신을 이끌어주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사회도 문화도 바로 갈 수 있잖아.”

기자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는 첫인사 같지는 않았다. 햇살이 사각(斜角)으로 들어오는 금문사 태고선원 선방에서 인사를 올리자 정론직필도 양심적 지식인도 그리 많지 않은 세상을 염려하는 지허(指墟·69) 스님.

“이 차 향기 한 번 맡아 봐. 내가 만든 건데,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뒀은 거야.”

차(茶)에도 일가를 이룬 지허 스님은 선암사에 아홉 채의 전각으로 구성된 대규모 야생차체험관을 설립한 주역이기도 하다.

“나는 선지식이 아닌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왔으니 헛됨을 팔게 되었는데. 신문에 내고 말고는 기자선생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살아 온 이야기나 좀 들려드릴까?”

스님 앞에 놓인 다락은 찻잔 서너 개를 올려놓으

하게 인생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서양의 철학자들을 접하고 나서 나는 조금씩 염세주의자가 된 거야. 나는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고 형님과 누님들도 공부를 잘 하여 당시로서는 잘 풀렸지. 아버님께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절을 하나 지을 정도로 불심도 깊으셨지. 그런 집안에서 내가 염세적으로 흐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나는 심각했어. 그 친구들과 수면제를 먹는 내기를 했는데, 참 부질없고 위험한 짓이었지. ‘세코날’이라고 들어 봤나? 바로 그 수면제였어. 친구 중의 하나가 그걸 50알을 먹고 죽은 거야. 종이에 없을 무(無)자 세 개를 써놓고.

그 친구를 화장한 곳에 가 본 것은 이를 뒤였어. 정말 아무것도 없더군. 만년필 꽃이 부분의 작은 쇠 조각과 허리띠의 버클이 형체를 알아보겠더군. 그걸 보는 순간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 없을 무자 세 개의 의미를 알게 되었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허무를 느끼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후 친구들과 함께 순천 동화사란 절을 갔는데, 거기서 청운(淸雲) 스님을 보았어. 그 스님은 송광사가 설립한 학교의 교사였는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온 분이였지.

우릴 보고 먼저 물으셨어. “어디서 왔느냐?” “별교에서 왔습니다.” “하늘을 보았느냐?” “봤습니다.” “본 것이 무엇이나?” 그만 말이 막혀 버렸지. 병어

에 묻혀 있는 실존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 허무를 느끼고 하늘을 보았으니 바로 그 ‘느끼고 본 놈’을 알아야 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행자 생활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갈망으로 불심도 깊어졌다.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두어 달을 앓다가 공으로 절발 축내는 것이 송구스러울 무렵이었다. ‘길을 잘 못 들었나’ 하는 의심까지 찾아드는 어느 날, 칠전선원으로 불려왔다. 선암사 주지를 오래하고 당대 선객들 사이엔 이름이 높던 선곡(禿谷) 스님의 조차였다. 용성 스님의 법을 이은 선파 스님의 상좌인 선곡 스님은 6.25 전쟁 때 유일하게 남아 선암사를 지킨 분이다. 소개령이 내린 와중에 ‘나머지 절을 비우면 절은 다 불타버릴 것’이라며 끝까지 절을 버리지 않은 분이다. 상원사의 한 암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허 스님은 그 때가 참으로 행복했다고 회고 했다.

칠전선원에 올라가니까 노장 스님들이 10여 분 계셨어. 어린 나를 예뻐 해 주셔서인지 노장님들 모시는 것이 참 좋았지. 그런데 이 노장님들이 차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다각(茶角) 소임을 맡은 나로서는 차 끓여 올리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 차가 나올 때는 그날 뒀은 차를 그날 다 올려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몸도 안정되고 일도 즐겁게 하면 어느 날 선곡 스님께 차를 갖다 드렸어. 스님이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더군. “지용(智容, 사미 때의 이름아.)” “네.” “세상에서 뭐가 제일 크냐?” “마음이 제일 큼니다.” 나는 나름대로 스님께서 법담을 하시는 줄 알고 아는 체를 좀 했는데,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어. “마음이 크냐? 하늘이 크지.” 나는 그 생각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 하늘이란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보이는 것이니 인식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마음이 더 큰 것이란 생각이었지.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다시 차를 갖다 드리고 자리에 앉아 여쭙었어. “분명 하늘 보다 마음이 더 큰데 그 큰 것을 모릅니까?” 스님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그저 차만 드셨어. 차를 다 드시고 잔을 돌려 주시면서 “내 차는 내가 마셨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도 제 차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제(一歸何處). 이것이 네가 내 차를 마시는 도리다.” 나는 그렇게 선곡 스님에게 회두를 받은 거야.

이후 지허 스님은 강원에 들어가 경을 배웠다. 열심히 공부했다. 어려운 시절, 공부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절집의 사절인연이었다. 선곡 스님이 편지 한 장과 함께 해인사로 가라고 하여 해인사 용담에서 고암 스님을 곁에서 시봉했다.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께 대들었던 지허 스님의 회고담이 컷전을 떠나지 않는다.

한 때, 용성 스님께서 제방 선원에 “인수정등(岸樹井巖)의 일구(一句)를 일러라” 하는 전갈을 내니까 만공 스님이 “자야몽중사(昨夜夢中華)나라” 라

## 중학생 때 철학서적 탐독하다 선암사로 출가

## ‘만법귀일...’ 화두 정진, 경봉 구산스님 등 친견

## 태고선원 선농일치로 운영... “신농경사회 돼야”

면 딱 좋을 크기다. 가로로 세 뺨쯤 되어 보이고 세로가 한 뺨 반 남짓한 작은 다락이다. 아무런 무늬도 없고 반듯한 사각의 다락. 세 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스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락을 닮아 있었다. 꾸밈없고 크지도 않지만, 흐트러짐이 없고 머물기가 급강석 같은 반세기의 시간이 응축된 유적(幽寂)이었다.

별교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남학생이 세 반, 여학생이 한 반 그렇게 네 반이 동급생이었지. 각 반에서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 하는 사람 넷이 친했어. 그런데 서로 경쟁 관계니까 친한 속에도 은근히 서로를 경계하는 맘이 있었지. 그래서 서로 보는 앞에서서도 집짓 공부 하는 티를 안내려고 했지. 그래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그게 죄다 서양의 철학서적이었어. 칸트와 쇼펜하우어와 하이데거를 만난 우리는 자주 토론을 하기도 했고 각자가 골똘

리처럼 서 있는 우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오가피 차를 한잔씩 주셨어. 그리고 다시 물으시더군. “마음을 아느냐?” “웁니까?” “나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중이 되어서 참선을 하면 된다.”

나는 그 순간 내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그해 중학교 3학년 가을의 일이다. 그해 겨울방학 때 나는 출가를 하려고 생각을 다지고 있는데 한 선배가 뜬금없이 찾아와서 “나 출가하는데 너도 가지 않을래?” 하더군. 뭐 생각할 겨를이 있나? 따라 나섰지. 그 형은 송광사로 가고 했는데 나는 왠지 선암사가 좋을 것 같았어.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공부도 잘 했던 모범생에게 선암사의 행자 생활은 힘겨웠다. 그것도 겨울철에 절에 들어가 공양간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래도 행자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 연세의 그들

##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인도한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 최고급 천연방수 “뉴빅” 사용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성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 남성용 • 여성용  
• 특수아이젠 부착으로 미끄럼 방지  
• 수많은 천하 레저를 거쳐 개발된 신개념 등산화  
• 악천후에도 질 미끄러지지 않는 눈발막 소재의 밑창  
• 가격 88,000원 • 여성용(색상 약간)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갈슘,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터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 130,000원에서 100% 할인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옷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었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값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와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 내용량 : 1팩(580ml) × 60팩 2개입  
• 1팩(1.5g)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 언론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옷 안타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옷을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식교점의이름의 품은아침 - 옷 잘 갖춰야 참옷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타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대,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참옷면 안이 되는 옷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상생일모임 - 계절의 보석 옷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극 - 협찬

### 구입편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은 일반시장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로전화 : 080-838-3366